

GLOBAL BEAUTY MEDIA

# BEAUTY FASHION

www.beautyfashion.co.kr

02-398-0000 | 02-398-0001 | 02-398-0002 | 02-398-0003 | 02-398-0004 | 02-398-0005 | 02-398-0006 | 02-398-0007 | 02-398-0008 | 02-398-0009 | 02-398-0010 | 02-398-0011 | 02-398-0012 | 02-398-0013 | 02-398-0014 | 02-398-0015 | 02-398-0016 | 02-398-0017 | 02-398-0018 | 02-398-0019 | 02-398-0020 | 02-398-0021 | 02-398-0022 | 02-398-0023 | 02-398-0024 | 02-398-0025 | 02-398-0026 | 02-398-0027 | 02-398-0028 | 02-398-0029 | 02-398-0030 | 02-398-0031 | 02-398-0032 | 02-398-0033 | 02-398-0034 | 02-398-0035 | 02-398-0036 | 02-398-0037 | 02-398-0038 | 02-398-0039 | 02-398-0040 | 02-398-0041 | 02-398-0042 | 02-398-0043 | 02-398-0044 | 02-398-0045 | 02-398-0046 | 02-398-0047 | 02-398-0048 | 02-398-0049 | 02-398-0050 | 02-398-0051 | 02-398-0052 | 02-398-0053 | 02-398-0054 | 02-398-0055 | 02-398-0056 | 02-398-0057 | 02-398-0058 | 02-398-0059 | 02-398-0060 | 02-398-0061 | 02-398-0062 | 02-398-0063 | 02-398-0064 | 02-398-0065 | 02-398-0066 | 02-398-0067 | 02-398-0068 | 02-398-0069 | 02-398-0070 | 02-398-0071 | 02-398-0072 | 02-398-0073 | 02-398-0074 | 02-398-0075 | 02-398-0076 | 02-398-0077 | 02-398-0078 | 02-398-0079 | 02-398-0080 | 02-398-0081 | 02-398-0082 | 02-398-0083 | 02-398-0084 | 02-398-0085 | 02-398-0086 | 02-398-0087 | 02-398-0088 | 02-398-0089 | 02-398-0090 | 02-398-0091 | 02-398-0092 | 02-398-0093 | 02-398-0094 | 02-398-0095 | 02-398-0096 | 02-398-0097 | 02-398-0098 | 02-398-0099 | 02-398-0100

## Style Propose

활한 감각의 스포티레이어와 부드러운 느낌의 보브레이어

## Basic House

A라인 보브스타일을 위한 스텔어레이어II 테크닉

## Iron Master

어플-통스트라이프와 연출한 주술 풍류형 로 케미닌컬링

SAILEEISM

침조적 개성을 추구하는 그려지 마인드와 반항적인 아트펑크족의 팀 프로젝트 재해석

# Anti Grunge Punk

## Artist Know How

어플 스타일의 웨스타일링 등 스타일론의 미감과 레이아웃 제안

## Salon Care

현대인의 헤어관리 포워드 레드컬러와 스텔어레이어 노하우

2007 S/S

# Signal

2006년 3월, 시그널의 기호탄이 발생되었다. 한국 미용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탄생한 기그널은 팀 르시크의 경쾌한 플레이와 함께 2007년 4월을 맞이하여 제 2의 도약을 다진다. 이규용, 사이라, 그리스기, 각자 분명한 색깔을 지니며 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팀 르시크는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시그널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맺고있다. 다양한 소재활용과 자유자재로 탄생되는 실루엣, 컬러 및 질감은 아방가르드헤어의 전기를 마련하고 임팩트 있는 비주얼을 통해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은 무한경도에 진입, 각자의 감성이 확장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막아 세상에 유일한 작품이 탄생되는 순간, 그들의 창작의 대한 고뇌는 더욱 깊어지고 더 나은 넥스트스타일의 결과치로 이어지는데, 철저한 기획과 컨셉트 분석, 소재 선정 및 작품 구성, 스타일스타치 완성, 실전에서 창의적 감각은 세가지 감수성을 만나 그 이상의 스타일을 연출해 내는데 이는 한 편의 대하드라마와도 같다. 후배들에게 미용에 대한 의식 개혁을 일으키고 무한 감성으로 열정과 능기 부여 그들의 시명감을 지나며 르시크는 진진한다. 심이안으로 분석한 컨셉트의 이해력은 스타일의 폭넓은 해석으로 이어지고, 매서운 손맛과 탁월한 영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스피디한 결과물을 낳고 헤어스타일의 한계를 없애 아티스트의 실험적 마인드는 창작의 폭을 무한대로 올려놓는다. 디지털의 세 감성요건은 하나의 색선에서 응집되어 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진진하는 그들은 르시크이고 그들이 보내는 시그널의 사인만 계속될것이다.

TEAM **LESACH**



헤어 팀 르시크 (이규용(팀스튜디오리서치), 사이라(시이그라운드), 그리스기(크리스티안헤어드레싱스쿨))  
메이크업 이규원(엘제이올바티아카데미) 욱성 김성진(아지오)  
헤더의 손세은 조동그레의 손영실, 한바다 로를 열었다.

Hair Team LESACH: Lee Kyuyong(Dota International), Saieara(Christi Christian Academy), Christ(Christi Hairdressing School)  
Make-up Lee Jangwon(JL Academy of Beauty Arts) Fashion Coordination Kim Sangjin(Majo)  
Editor Son Seoun Photographer Son Byunguk, Han Bada Model Elena

Style by Sai Lee



창조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마인드가 그려지듯 감성과 만난다.  
예술적인 상상력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스트리트스타일의  
연인함으로 표현되고 비록 시장문화의 폭과 세간한테서 열광하는 젊은 감성은  
프레피한 그린지스타일로 표출된다. 때 묻은 낙서처럼 밟바엔 듯한  
컬러 레인지, 아트적인 성향이 믹스된 그린지 감성은 중성적인 뉴트럴  
컬러와 톤 다운된 그린 컬러로 낚은 듯한 컬러감을 표현하고  
1960년대의 반항적인 핑크록을 만나 내오그린지를 형성한다.  
1969년대 반항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패션룩인 펑크(punk)는 권위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는 순수한 영혼들의 젊은 의침의  
반영물이다. 열광믹스나 그린 등 독창적인 컬러로 염색하고 기묘나쁜  
메이크업을 즐겨하며 개의 목 끈, 안전핀, 영도기를 액세서리로  
착용하기도 한다. 극히 일부 젊은이들에 한정된 펑크 패션은 점차 일반  
패션에 영향을 주고 오늘날 아티 그린지 붐과 만나 그린지 펑크를  
탄생시킨다. 상반기 메인 스트림인 그린지룩을 코트코믹 아방가르드  
해어 패션으로 만나본다.





# interview

## 르사크는 어떠한 팀인가? 그리고 시드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르사크는 미용계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단체다. 각자의 색을 지닌 세 사람들의 큰 포부가 일치해 르사크라는 팀을 결성했다.흔히 헤어쇼나 트렌드 활동 등 창의적인 영감과 크리에이티브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유럽이나 일본의 작품 등 국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배 미용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높임으로써 결국 한국미용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이어 존재하고 있는 시그널 색선에서 보다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방기르드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메인스트림의 컨셉트에 맞춘 작품들은 다양한 소재사용과 실루엣의 변형으로 질, 앙감의 대비는 물론, 컬러 조화 등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고있다. 이는 새로운 시도이고 이 작업의 영향력의 범위를 그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그널 컨셉트 미팅 이후 작품의 완성까지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컨셉트 미팅이후 컨셉트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 컨셉트에 충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화와 밸런스를 중시한다. 머릿속으로 스타일에 대한 구상이 이뤄지던 여러 번의 스케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루엣을 결정하고 그 실루엣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다. 소재의 후보들이 결정되면 소재의 특성에 따른 질감과 앙감, 실루엣, 컬러를 분석하고 컨셉트로 다시 돌아가 적절한 소재를 최종 선정하고 실질적인 작품 준비에 들어간다. 아방기르드는 무공무진하다. 표현을 제한하는 한계의 요소가 없기에 소재의 사용과 디자인에 있어 창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작품마다 100%의 만족은 기할수 없다. 물론 만족도의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의 아쉬움은 다음작품의 힘이 되는 부분이기애 그 점에서 행복하다.

## 서로가 바라보는 각자의 스타일은? 서로는 어떠한 관계인가?

크리스가의 작품은 전위적이다. 독특한 느낌과 소재 사용을 추구하며 크리에이티브한 감각은 그야말로 유니크하다. 이류준의 작품은 색의 조화가 탁월하고 문예 감이 있다. 세련됨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헤어작품을 만들어내는 스케일과 상당하다. 사이리는 컨셉트의 창의적인 표현과 손맛의 감각과 감성으로 스피디한 스타일의 완성이 특징적이다. 스스로 더 말하기가 그렇다. 그리고 르사크는 팀원 협력관계다.

공동의 목표와 목적의식으로 결성된 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이 팀 전체의 위상을 끌어뜨리지않을까 하는 겸손과 우러속에 모두 분발하고 있다.



## Sai Lee



## 사이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큰 계획을 세우며 안목을 넓히고 계획한 것들은 확실히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미용을 좋아해 20대에 미용을 시작했고 30대에는 사업을 일궈으며 40대에 접어들었다. 미용을 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내일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날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물론 그 시간들의 값진 노력들로 인해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새로운 뭔가를 해야할 시점에 있다.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찾고 가족들과 주변지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의 원천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좀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다. 예술과 창작 또한 지금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발현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즐거움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는 것이다. 의미를 지나쳐 버리지 않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사랑한다.



Signal

07 S/S  
LEASACH  
TREND



# utility retro tailoring

그 어느 때보다 과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있는 2007년, 르사크의 시선으로 복고 스타일을 분해했다. 작년부터 트렌드를 지배하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모던함을 바탕으로 각각 'Groove 80's', 'Space Odyssey', 'Dressy Sporty' 라는 컨셉트 아래 60년대와 8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살롱에서의 트렌드 분석력과 디자인적인 시각의 폭을 넓혀 줄 07 S/S LEASACH TREND.

메이킹: 최사희(이규영(홍스킨라네살), 사이리(사이리콤이카데미), 크리스티(프리스티에어메이크업스쿨))  
헤어: 조갑 유희영(엘제이뷰티아카데미), 패션: 최다혜(이선 김상진(마지오), 진나(마음스타일))

Make Team: LEASACH(Lee Kyuhyung(SOFS International), Saekel(Saekelun Academy), Chiriki(Christi Hairdressing School))  
Make-up: Yu Heeung(L.A. Academy of Beauty Arts) Fashion Coordination: #18 Sangju(Magoo), Cheon Han(PUZZLE STYLE)  
Editor: Song Jiyoun Photographer: Son Byungki, Han Bada Model: An Sonhee, Kang Yoorjung, Lee Sangyung



## Life Style + Now Trend &gt;&gt;&gt; Beauty Industry

4계절의 구분이 무너진 '시즌리스'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계절을 대표하는 고유 아이덴티티 사라지고있다. 겨울에도 시원 핑크가 디스플레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인해 베스너나 간결이 아이덴티티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즌리스 현상은 소비자에게 날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하우를 요구하고 나아가 패션문화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변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패션에서는 레이어드 착장이 유행코드로 자리잡았으며, 코스메틱 역시 자외선 차단제와 마오드란트 등의 상층과 상근열이 높은 수요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헤어도 레이어드 특장점 하나의 헤어스타일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한 실용적인 컷과 컬러 매뉴얼이 확대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시즌 트렌드인 보브스타일은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스타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요일별 스타일링 연출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있다.

2007년 라이프스타일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에고노믹스 디자인이다. 외관 중심의 설계를 의미하는 에고노믹스 디자인은 스포츠 웨어를 시작으로 패션과 가전, 전자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술적인 진화과 함께 인간 중심의 경서적이고 감성적인 측면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이 특징. 2007년 에고노믹스 디자인은 퓨처리즘이나 스포티움 트렌드와 혼란하여 각각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헤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디자이너들에 의한 스타일 제안이 아닌 철저한 고객 중심의 살롱워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 개인의 특징과 퍼스널 컬러 분석을 통한 맞춤 헤어스타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헤어시장의 '미정법칙'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변화에 지친 현대인들이게 조용하고 명쾌한 삶, 그 속에서 발견하는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단순함에 대한 미학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사람들은 무위 무심에 의한 외적인 무유량에 아니라 명상, 겸손, 건강, 친밀감 등의 내적인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젊게 사는 새로운 미덕으로 떠오르면서 미니멀리즘이 사회 전반에 침투되었다. 자연친화적인 경향은 스포티움에서까지 영향을 미쳐 우아하고 편안한 시티스포츠웨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2000년대로 돌아서면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헤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는데 2007년에는 60년대와 80년대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테크노의 진보는 혁신적인 60년대를 떠올리게 했으며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퓨처리즘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더불어 80년대는 여성성이 재발견된 시대였다. 최근 알파카는 골드미스, 스웬족 등 여성의 경제, 능력, 대모 등 실력있는 여성을 칭하는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활동범위가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파워는 골라머러스한 마트나와 전사 이미지의 시고니쉬워들과 같은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들 만들어냈던 80년대의 유행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시즌 트렌드를 바탕으로 유틸리티 사크의 메인테이머는 'Utility Retro Tailoring'로 결정되었으며, 각각 Groove 80's, Space Odyssey, Dressy Sporty 라는 컨셉트 아래 2007년 상반기 트렌드를 제안한다.



## Groove 80's

80년대의 경제적인 풍요는 패션스타일의 변화를 대로 확대시켰으며, 경제의 정상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미는 -보- 그루이 글래머러스하고 성숙한 분위기가 유행했다.

또한 그 당시 음악의 유행과 헤어의 스타일 또한 대는 여성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했다.

이유유은 80년대의 글래머러스함을 2007년의 모던한 시선으로 표현하며 상하의 극적인 대비에 초점을 맞춰 레이어와 그라데이션 컬러와 영감의 차이로 모던적이 특징을 강조 디자인적인 재미를 헤어스타일만에 담아냈다.

## Space Odyssey

2007년도 상반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헤어 트렌드는 1960년대 유행했던 이적주의에 대한 복고풍 열풍의 여파에 대한 노년적인 정서가 의한 실용에서 시작되었다.

올라이더나 스타워즈 등 공상과학 영화에 영감을 받은 듯한 스타일 속에 미니 릴리핀이 한자 단수하면서 시크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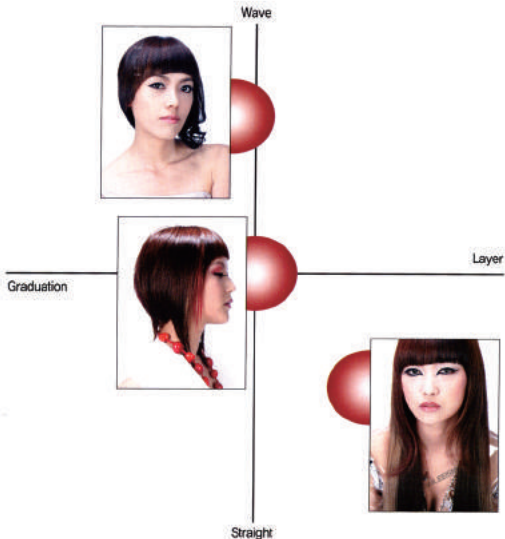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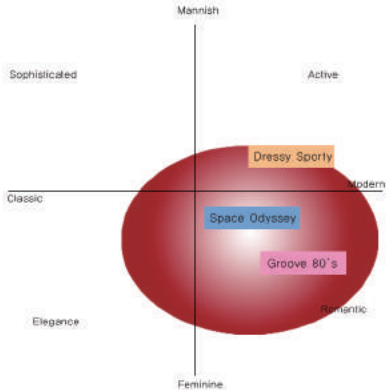
사이리오는 유채리움의 울림하고 시묘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소파리움의 외장까지 않은 커트라인을 선보였다. 또한 컬러시퀀스에는 고급스럽고 크리미한 컬러감으로 해석하여 온오프 컬러를 적용, 전체적으로 레이어드된 질러 연출을 통해 스타일을 완성시킨다.

## Dressy Sporty

미니 릴리핀에 감성적인 스포티함과 결합했다. 이번 시퀀스포인트유은 기존의 멀티브랜에서 벗어나 여성스러운 감성으로 재해석된 시퀀 웨어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애고노믹스 디자인의 영향으로 전체의 곡선을 살리고, 유채적인 자디스재어모가운 피트니스 연스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 눈에 띈다.

고급스럽고 편안한 클래식스스포츠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장점을 통해 데이트 선장우 드레스 스포티를 크리시기는 멋이후 모브스드 유행을 바탕으로 모던적이고 역동적인 모소를 확기하였다.

여기에 길어오랑준경의 재미를 통한 비다정역미스타일을 재의한다.





# Space odyssey

Style Sailee

**#이벤트는 당시의 트렌드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과거의 현대적인 재해석, 80년대 퓨처리즘.

**#이벤트드 작업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떠올랐 것인가?**

스티워드, 아일랜드 등 공상과학 영화속의 글로시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연상한다.

**#메인 테마인 'Utility Retro Tailoring'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퓨처리즘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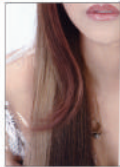
유행은 계속해서 들고 있지만 단순히 모방에 머물지 않고 시대에 맞는 해석너플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고풍의 다양한 스타일과 소재를 믹스해치하면 무수히 많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80년대 퓨처리즘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시한 표현에 중점을 두었지만, 더불어 80년대의 포멀하고 하드한 데일러링과 90년대의 정제되고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연계시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테마 안의 접점을 찾아가 했다.

**#패션에서 퓨처리즘은 다양한 소재의 사용, 반짝임으로 대표된다. 헤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전체적으로 과장되지 않은 느낌의 커트와 안장감 속에서 겹쳐진 듯한 헤어드 컬러만으로 풍부한 디자인의 짜임새를 연출하고자했다. 특히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 프리지 헤어를 하드라인으로 커트하고 사이드는 레이어로 디스커넥션시켜 단차를 만들으로써 슬림하고 길게 켜 머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메탈릭 소재가 주는 자가용과 사이닝함은 컬러로 표현하고자 했다. 저주구리빛갈색, 잿빛밝은황갈색, 금빛아주밝은 황갈색 등을 콘셉트 약 인하여 전체 브라운 컬러의 안장감 속에서도 글로시함을 담아냈다. 스타일링의 경우 머지기를 이용하여 스타일에도 시크함을 더하거나 어시메트릭하게 질을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질러감이 돋보이도록했다.



# space odyssey



'미니멀리즘과 퓨처리즘의 결합을 라인과 컬러속에 투영시켰다. 하드한 프린지헤어로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고 사이드는 레이어로 디스커넥션 시켜 슬림하고 절제된 라인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다양한 브라운컬러를 존별로 작업하여 레이어드시킴으로써 헤어컬러의 글로시함을 표출했다.'



# Urban Elegant

세련되면서 단순한 실루엣에서 오는 편안함과 도외적인 이미지가  
진하게 베어있는 50년대 풍의 우아함과 다양한 형태의 페미닌 실루엣,  
시크한 볼륨들은 이번 시즌 트렌드 키워드이다.

Style by Sailee

Hair Sailee(Sailee's Academy 02-514-6412) / Make-up & Fashion Coordination Kim dahi/  
Photographer Kim Eungho, Hwang Yungchul / Editor Ha Jihae / Model Jung juyung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사이드와 베레 스타일로 세팅된 메인 볼륨,  
중성하며 섬세하게 흐르웨이브는 시각의 흐름에 리듬과 익숙함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미지의 결합과 변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타일.



# interview Sailee

## 예술적인간을 희망한다

대중의 높아지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 직업으로써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헤어디자이너라는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노출되어야 하는가? 헤어스타일이나 헤어디자이너의 관심이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재교과를 통해 전문화된 헤어디자이너들이 배출되면서 상당능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디자인의 개량 및 개성 있는 스타일의 구제화 또는 전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헤어스타일 또한 사기스타일이 부각되고 모량감소의 양감이나 머릿결의 표정을 만드는 질감부분에 중점을 두는 흐름이 안도적이다 보니 더욱더 세련되고 실은 희망과 활은 시간 내에 손질 가능한 스타일들에 관심이 있다. 언뜻 및 앞술처럼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유행정보가 빨리지는 현상 또한 대중의 헤어에 대한 관심과 중가에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이런 현상들과 관심에 대한 헤어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력강화를 들 수 있다. 스타일의 질감강간의 표현과 커트와 펌, 컬러의 연계성과 마무리의 연출력이 현재보다 발전해야 한다. 개인이든 살롱이든 시스템이든 상당 능력이 구체화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인정하듯 헤어 재교과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또는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 될 때는 언제인가 스스로 정체되어 있을때, 내내해질 때 스타일 아이디어가 어려울때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늘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한다. 종종 부족함을 느끼지만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 것이다. 작은 여유를 즐기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후에 배워있거나 끊임 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은 항상 넘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가치관과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적으로 겹쳐져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 따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고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차피 사별의 상이라는 것이 아무튼 같은 것 아닌가? 피니쉬 라인을 두고 경쟁자들과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면서, 평한한 길에 여유를 가질때도 있지만 승차 오르는 언덕길로 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잃지 않는 것뿐이다.

종종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인 또는 직부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나?

이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느긋한 자세로 세상의 흐름을 조망하는 한편 새로운 준비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유롭게 살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는 시기인 것 같다. 물론 육만 또는 육신이 날 때가 간혹 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육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중하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 잃은 일이다.





최근 수개월 사이에 주로 드라마틱한 아방가르드 헤어작업을 해 왔다. 왜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하나? 때면 새로운 컨셉트에 의한 디자인의 개발은 놀라운 정도의 재미를 준다. 커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신나다. 작업하는 동안 일과가 즐겁게 융합할 수 있는가 하면, 헤어디자이너로서의 활력소가 되고 삶의 무모함이 씻겨가는 기분이 든다. 작품을 남기는 것 또한 자기만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일 수도 있다고 보고, 후배들과 미용업계에도 자신 지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기도 하다. 이 정도만으로도 아방가르드 헤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당신은 '예술적 인간'인가? '상업적 인간'인가? 자신을 극단적으로 상업성과 예술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지만 공식적으로 나는 사업가이며, 상업성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상업성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이카데미와 살롱을 모것중인 경력에 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헤어아티스트이며 고객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난 상업성과 예술성의 관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역시 상업적 부분에 속해 다양한 경영전략과 마케팅을 토대로 비즈니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살롱 헤어디자이너로서 발할 때나 김작할 때에 는 스타일에 은비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술적 인간을 추구한다.

당신을 포함해 한국의 우수한 헤어디자이너들과 살롱들이 '상업적 예술가'로서 권경은? 교육을 토대로 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 강화는 헤어디자이너-고객에 상관없이 어떤 실업이 집중해야 한다. 단순하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다. 살롱에서는 침구, 킴, 키트 그 이외 기타에 뉴트 기초부터 스타일 연출까지 일관 있는 실용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샵부터 점적, 고객서비스 등에서 체계를 갖춘 실용보다는 그렇지 못한 실용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헤어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살롱은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창조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 Sailee

사이리(사이라졸아카데미) 원장

카사헤어샵포지엄은 카시미엔 및 제조육기관들이 미용계와 미용인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수 있었던 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무대를 통해 내재되어 있는 특유의 감성과 한발 앞선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액티브를 컨셉으로 레드와 미니멀리즘을 접목시켜 작품성을 위주로 하는 쇼스타일과 현실감과 맥동성을 부여한 독특한 작품들을 필두로 사기스타일에 매너쉬한 이미지를 결합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용계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미용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한 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SAILEEISM

SAILEEISM

# KASA Hair Symposium

8인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유익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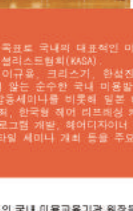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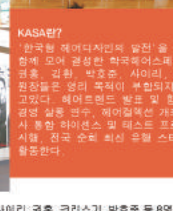


●● 무대 위에서 무대가 보여요



●● 오프닝 직전 스타일 비공개 비하인드

리빙 무대라는 특성상 각 현장별 스타일 연출 노하우가 주효해지는 행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해외의 기능성을 모르는 등 아쉬움을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각 현장의 재치있는 입담과 마술, 노래, 퍼포먼스 등이 선보이는 한편 리빙댄스 및 미모이들의 공연등 흥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소지 지루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재미있게 구성, 관람객은 미용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성공하리라 기대 내리는 데 일조했다. 행사 후 커서 관계자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며 "첫 행사지만 미용인 부분이 많았지만 이후 후진파 발전은 많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영상을 통한 전시기 개념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대는 이렇게

## KASA란?

'한국형 헤어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미용교육기관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한국헤어스퍼블리스트협회(KASA). 김용, 김현, 박종준, 시이리, 이규용, 한성진, 율리안 등 8명의 회장들은 영리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순수한 국내 미용업계를 위해서 공직이 고있다. 헤어프렌드, 발모 및 활동세미나를 비롯하여 일본 헤어디자이너 및 우수 권영 실용 편수, 헤어컬처링 개화, 한국형 헤어 비프헤어스 카미올림 개화, 최철 시, 용한 헤어센스 및 레스도 프로그램 개발, 헤어디자이너, 특별 인증제도 공동 시행, 전국 순회 최신 유행 스타일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활동한다.

이규용, 한성진, 현리박, 김용, 시이리, 김용, 크리스키, 박종준 등 8명의 국내 미용교육기관 원장들이 모인 KASA(한국헤어스퍼블리스트협회)가 해외 발족 시 추진 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이 협력선을 개표, 서미트연호형식의 '가사 헤어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료입에도 불구하고 행사 10일전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을 물론 당시 참석관객까지 할 정도로 큰 호응을 끌어 700여명의 관객들에게 성공, 성공을 이뤘다. 커서&유경덕티브 네오&픽티브 등 큰 컨셉트 아래 강도의 힘으로 나뉘 세미나를 통한 거대한 스타일링 제시, 개성있는 무대를 연출했다. 대문스프레이션으로 진행돼 관람객들이 직접 무대에서 다양한 스타일링 기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무대를 연출, 자습도 주최하는 행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해외의 기능성을 모르는 등 아쉬움을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각 현장의 재치있는 입담과 마술, 노래, 퍼포먼스 등이 선보이는 한편 리빙댄스 및 미모이들의 공연등 흥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소지 지루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재미있게 구성, 관람객은 미용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성공하리라 기대 내리는 데 일조했다. 행사 후 커서 관계자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며 "첫 행사지만 미용인 부분이 많았지만 이후 후진파 발전은 많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영상을 통한 전시기 개념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We are the  
Korean Hair Expert!

LESACH,

